



예수간호동문회보

창간호
1997.12

발행인:공순구 / 편집인:김강미자 / 발행:예수간호전문대학 동문회 / 주소: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68-1 (560-250) / Tel.(0652)230-7700 / Fax.(0652)230-7790



1954년 1회 졸업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학교앞에서
2회 후배들이 선물한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했다

발간사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모교는 날로날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우리 동문회 역시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여 왔습니다.



공 순 구 동문회장

우리 모교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참으로 특별한 역사와 전통과 사랑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잊힐 리 없는 우리들의 무수한 추억과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이곳 마가렛동산은, 고 마가렛 프리차드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믿음의 귀한 씨앗이 심겨진 곳이며, 거기에서 무성하고도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또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제자들이 삶의 훌륭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기독 간호사가 되어, 온 세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각각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열심히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954년, 10명의 1회 졸업생 언니들과, 11명의 2회 졸업생, 총 21명의 회원으로, 예수 간호 동문회가 발족된 이후 45개 성상을 지나면서 2103명의 회원을 가진 훌륭한 동문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동문들은 모교를 신축할 때와, 신애학사의 신축시, 또한 아름답고도 웅장한 예배당의 신축에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았으며, 크고 작은 모교의 행사에 관심과 정성으로 후원하므로써,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일이 있을 때마다 힘겹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모교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양광자 학장님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동문 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회지발간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나,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올 2000년에는, 개교 50주년이라는 가슴 벅찬 역사를 가진 우리가, 금년에는 반드시 회지발간을 실천에 옮기자는 뜨거운 결의로 제1회 회지를 발간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에 힘을 얻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였으니, 우리 동문회지 또한 얼마후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놀랍게도 변화하는 시대적 발전과 함께, 2000년을 향한 우리 모교는, 아름다운 기독대 학으로써, 확고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박은 새시대의 영적지도자로서 기독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힘차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모교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항상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장인사



양 광 자 학장

“사랑과 진리”로 교육한지 47년이 되는 즈음에, 2000여 동문의 적지만 간절했던 소망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솟아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본의 아니게 예간학보를 이용해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버젓이 우리들의 소식을 담은, 우리들의 회보가 창간되어진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결실은 작은 지천(池川)이 모여 대해(大海)를 이루듯, 주님을 의지한 동문들 기도의 힘이 하나하나 모여 이루어 낸, 의미 있는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동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예수간호전문대학인들 만의 긍지요 힘의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간사 양상이라는 우리 대학 교육 이념에 맞춰, 매일처럼 드리는 전교생의 예배 모습, 그 모습을 담을 수 있는 “Seel Chapel”이 동문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으로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교육공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Pritchard Hall”에서 학습 미디어를 이용하여 교수 - 학습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동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간동문 여러분은 누구나 이 녹원동산에서 가꾸었던 아름다운 추억과 꿈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꿈꾸었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각지에서든 기독교간사로서 간호의 위상을 높이며, 또한 선교사로서, 교수로서 그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적인 봉사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대학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선교사 Magaret Pritchard 선생님의 투철한 신앙 철학과 동문 여러분에게 향하신 헌신적인 사랑으로 세계화에 앞장서신 분들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문 한사람의 온유와 겸손으로 베푸는 삶이야말로 우리 대학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동문회보의 창간을 다시 한번 자축하면서, 부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교는 여러 동문들의 기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약속하면서 개교 50주년인 2000년 6월 1일에 만나뵙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서 시

조·민·숙

- 시인
- 1994. 10 문학세계로 등단
- 27회 동문
- 현 예수병원 의료보험 심사계장

세상에 팽개쳐진 상처를
함께 따스한 손길로 감싸보자고
한 울타리 안에서
손잡고 눈맞추던 시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꾸던 길은 막혀있습니다
철이 없어서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길은 항상
다른 길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문득 제자리에 서서 보면
끝도 없는 소유욕에 휘말린 사람들
모두가 눈멀었습니다

눈먼 사람들
눈먼 세상이지만
6월의 햇살은
숲마다 녹음의 꿈을 뿌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눈 바로 뜨고
빛으로 살아보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동문회 임원 소개

동문회 임원 (상임이사)

회 장	공 순 구 (2회)
부 회 장	김 성 란 (12회)
	김 연 자 (6회)
	고 유 근 (6회)
	박 순 옥 (6회)
	오 은 자 (11회)
	이 덕 례 (2회)
	최 학 례 (15회)
총 무	이 인 수 (4회), 이 경 자 (7회)
회 계	염 정 임 (7회), 김 봉 선 (20회), 김 은 숙 (25회)
서 기	김강미자 (15회), 박 정 순 (17회)
감 사	이 광 자 (12회), 김 금 자 (16회)

제3대 이사 (1996. 6 ~ 1998. 5)

- | | |
|---|--|
| <p>1회 - 김정숙, 박해옥, 최순자</p> <p>2회 - *공순구, 이덕례, 김은옥</p> <p>4회 - 양순복, 이인수, *황희심</p> <p>5회 - 이준례, 김정순</p> <p>6회 - *양광자, *고유근, 김연자, *박순옥, *서점순</p> <p>7회 - 이경자, 염정임, *라명희</p> <p>8회 - 이 라, *백영애, 박희정</p> <p>9회 - *양정복, *은재희, 임행자</p> <p>10회 - 이순자</p> <p>11회 - 신정자, *오은자</p> <p>12회 - *김성란, *이광자, 서명자, 양혜숙, 이향숙</p> <p>13회 - 강희자, 박 정, 오순화</p> <p>14회 - 유영삼, *김정숙, 정숙자</p> <p>15회 - *김강미자, 양정숙, 최학례</p> <p>16회 - *김금자, 권양순, 지옥순, 주정님</p> <p>17회 - 박정순, 김용옥, 이학순, 조현숙, 김명숙</p> | <p>18회 - 박홍순, 유금주, 장현화</p> <p>19회 - 유 순, 송국희, 유점순, 한금녀</p> <p>20회 - 김봉선, 최옥주, 장은숙</p> <p>21회 - 서정자, 장용순, 차혜영, 박효순</p> <p>22회 - *정여숙, 김형자, 송성희, 이덕실, 조점엽</p> <p>23회 - *정정숙, 전영신, 서인숙, 고정순</p> <p>24회 - *양명순, *김경림, 배은경, 김숙희, 김순애, 황영숙</p> <p>25회 - *김은숙, 임순옥, 유금희, 정하숙, 유필숙, 김현숙, 이정희</p> <p>26회 - *한혜실, 양복순</p> <p>27회 - *윤 진, 정명휘, 이화주</p> <p>28회 - 방현숙</p> <p>29회 - *양명석, 이효실, 송호은</p> |
|---|--|

* : 평생이사

동문회 사업 소개

● 주요 사업내용

1. 선교사 지원(네팔-23회 이춘심, 파키스탄-25회 박현수, 태국-34회 김선이)
2. 회원 경조사업
3. 모교 예수간호학보사 지원
4. 모교 총 학생회 축제 지원
5. 장학금 지급

● 전체 이사회

- 이사는 200명 이하로 구성, 2년의 임기를 갖고 연임할 수 있다.
- 이사는 동문회 임원회(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전체 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여 총동문회에 상정할 안전과 토의사항을 사전에 심의한다.

● 상임 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동문회 임원회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 | | | |
|-------------|-----------------|-------------|--|
|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 10명 이내 | 3) 총 무 : 2명 | |
| 4) 서 기 : 2명 | 5) 회 계 : 3명 | 6) 감 사 : 2명 | |

97년분 동문회비를 내 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회무보고

동문회의 회계는 회원(평생회원, 일반회원)이 내주신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을 경상비와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교의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확보를 위해 이사들이 출연하는 이사회비가 있다.

1. 경상회비

동문회 회칙 제6장 20조에 의해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회비는 년 10,000원이다. 평생회비는 년 회비의 15배를 납부하면 누구나 평생회원이 된다. 일반회비는 현재 1300만원정도이고, 평생회원은 157명으로 평생회비기금은 약 2,000만원이다.

평생회비의 관리는 평생회비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2. 장학금

장학금은 경상비에서 매년 200~500만원정도가 전입되어 장족의 발전을 가져와 총 장학기금은 현 5,000만원으로 매우 미흡한 단계이지만 모교의 후배들에게 일년에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뜻있는 동문들의 장학기금 출연을 기다리고 있다.

3. 이사회비

1992년 6월 모교의 발전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동문회의 임원회의에서 결의하여 발족된 이래 많은 회원들의 협조로 기틀이 잡히고 있다. 회원으로 이사추대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원으로 월 10,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총 누계액이 50만원이 되면 평생이사가 되며 월 회비의 납부 의무는 끝난다. 또는 50만원을 일시 불로 납부하여 평생이사가 되는 방법도 있다. 이사회비는 모교의 원대한 장기 발전을 위한 기금이므로 뜻이 있는 분들은 계속 기금에 출연을 하고 있다.

이사회비가 대학발전기금의 목적이나 1997년 6월 총 이사회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모교에 방문하여 학교에 기탁하는 발전기금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하고자 대학발전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을 제정해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이사회비 총 1000만원이 학교의 대학발전기금으로 이관되어 위원장인 양광자학장이 책임관리하고 있다.

현재 이사는 96명이고 이중 평생회원이 25명이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기금 보고

예배당 건축기금을 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예배당 신축을 위한 기금 1억원이 seed money가 되어 총 1억원의 최신형 예배당이 신축되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의 영적인 성장은 물론 아름다운 성품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 건축기금을 내 주신 분

회기	성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비고	회기	성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비고	
1	김정숙	2,100,000	1989 8 21	500,000					강춘희(32회), 유애자(32회) 장은희(32회), 전필이(32회) 정미숙(32회), 최혜순(32회) 신희숙(33회), 김정임(35회) 문옥경(35회), 김지영(35회)	
			1990 1 16	500,000						
			1995 3 22	1,100,000						
1	박해옥	5,050,000	1994 2 16	50,000						
			1995 5 25	5,000,000						
1	오정옥	374,645	1995 5 24	\$500.00	7	송경원	2,000,000	1995 3 22		
1	은종국	3,300,000	1997 7 1	\$4,000.00	7	이경자	600,000	1995 3 22		
2	공순구	11,000,000	1990 1 16	1,000,000	8	김춘자	218,022	1990 10 23		\$300.00
			1996 2 27	10,000,000	8	손혜숙	75,107	1995 6 15		\$100.00
2	김은옥	5,300,000	1995 3 22	300,000	8	양정순	37,553	1995 6 15		\$50.00
			1996 11 15	5,000,000	8	오연순	75,107	1995 6 15	\$100.00	
2	이덕례	500,000	1990 9 14		8	이 라	2,000,000	1990 9 14	1,000,000	
3	강연자	530,000	1990 6 5	500,000				1995 3 22	1,000,000	
			1990 10 17	30,000	8	임혜승	75,107	1995 6 15	\$100.00	
4	송정순(서울조산소)	300,000	1990 10 5		11	김혜숙	75,107	1995 6 15	\$100.00	
4	양순복	10,000,000	1991 5 9		11	김홍숙	75,107	1995 6 15	\$100.00	
5	강석심	150,214	1995 6 15	\$200.00	11	신정자	500,000	1992 3 11		
5	김봉옥	65,000	1995 3 22		12	김성란	380,000	1995 3 22		
5	김정순	510,000	1995 3 22		12	김순희	75,107	1995 6 15	\$100.00	
5	이자희	2,000,000	1995 9 15		13	강희자	1,000,000	1995 3 22		
6	고유근	1,000,000	1989 8 23		13	오순화	300,000	1995 3 22		
6	박순옥	12,000,000	1995 3 22	2,000,000	14	김정숙	2,000,000	1995 9 14	1,000,000	
			1995 10 17	10,000,000				1995 2 22	1,000,000	
6	서점순	2,000,000	1993 11 5	1,000,000	14	유영삼	3,000,000	1990 9 14		
			1995 3 22	1,000,000	15	김옥자	75,107	1995 6 15	\$100.00	
6	신영희	500,000	1995 3 22		15	문옥자	75,107	1995 6 15	\$100.00	
6	유영자	75,107	1995 6 15	\$100.00	15	이남연	75,107	1995 6 15	\$100.00	
6	이영자	75,107	1995 6 15	\$100.00	15	김강미자	1,000,315	1993 11 15	1,000,000	
6	양광자	4,000,000	1989 8 21	500,000	16	구선숙	400,000	1995 3 22		
			1989 9 18	100,000	16	박경신	500,000	1995 3 22		
			1990 1 16	500,000	16	박수현	1,000,000	1994 10 19		
			1990 11 19	400,000	16	심영희	300,000	1995 3 22		
			1990 12 4	100,000	16	주정님	500,000	1995 3 22		
			1991 1 15	1,000,000	16	지옥순	200,000	1995 3 22		
			1992 2 7	1,000,000	16	김금자	1,000,000	1991 4 10		
			1992 10 16	400,000	17	김영숙	1,000,000	1995 3 22		
7	강정자	112,667	1995 6 15	\$150,000	17	김용옥	500,000	1993 7 12		
7	라명희	100,000	1995 3 22	송순일(14회), 김정희(23회) 한순녀(24회), 박선옥(26회) 호순환(26회), 라옥이(27회) 강영순(28회), 백초숙(29회) 김명란(31회), 박경희(31회) 이윤숙(31회), 조순복(31회)	17	박정순	119,050	1993 11 16	41,050	
	외22명(한양대 병원 동문1, 단체모금)							1994 11 3	26,000	
								1995 10 30	52,000	
					18	김영순	5,000,000	1996 5 28	1,000,000	
								1996 7 30	4,000,000	

회기	성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비고	회기	성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비고
18	박정선 외	3,000,000	1995 3 22		34	김미선	200,000	1995 3 22	
19	조숙희	400,000	1995 3 22		34	김윤희	200,000	1995 3 22	
21	차혜영	1,000,000	1993 4 15		34	김장미	200,000	1995 3 22	
22	정여숙	1,000,000	1993 10 6		34	김정옥	200,000	1995 3 22	
23	정정숙	500,800	1993 11 19		34	김혜정	200,000	1995 3 22	
24	이태민	68,807	1990 10 30		34	박현원	200,000	1995 3 22	
25	양정임	500,000	1991 1 8		34	백경아	200,000	1995 3 22	
26	옥루수	300,000	1994 11 30		34	서복순	200,000	1995 3 22	
26	한혜실	1,000,000	1993 11 16		34	송남숙	200,000	1995 3 22	
27	윤진	500,157	1993 11 15		34	송미숙	150,000	1995 3 22	
31	정향심	150,000	1995 3 22		34	송미정	200,000	1995 3 22	
32	박복임	30,000	1990 12 27		34	신명숙이원우부부	100,000	1991 3 25	
33	강미경	100,000	1995 3 22		34	신향숙	200,000	1995 3 22	
33	김미경A	100,000	1995 3 22		34	심선자	200,000	1995 3 22	
33	김미경B	100,000	1995 3 22		34	양미선	200,000	1995 3 22	
33	김미숙	100,000	1995 3 22		34	엄혜경	200,000	1995 3 22	
33	김영숙	100,000	1995 3 22		34	오경순	200,000	1995 3 22	
33	김화자	100,000	1995 3 22		34	육순옥	200,000	1995 3 22	
33	박미경	100,000	1995 3 22		34	윤미숙	200,000	1995 3 22	
33	박진연	100,000	1995 3 22		34	이란	200,000	1995 3 22	
33	배금배	100,000	1995 3 22		34	이가연	200,000	1995 3 22	
33	배옥수	100,000	1995 3 22		34	이덕자	200,000	1995 3 22	
33	오길순	100,000	1995 3 22		34	정숙자	200,000	1995 3 22	
33	이미혜	100,000	1995 3 22		34	진현숙	200,000	1995 3 22	
33	이성희A	100,000	1995 3 22		34	최성순	200,000	1995 3 22	
33	이성희B	100,000	1995 3 22		34	최순영	200,000	1995 3 22	
33	이승은	100,000	1995 3 22		34	최정숙	200,000	1995 3 22	
33	이정숙	100,000	1995 3 22		34	최정희	200,000	1995 3 22	
33	이정화	500,000	1994 10 20	200,000	34	홍명주	200,000	1995 3 22	
			1995 3 22	100,000	34	홍설희	100,000	1995 3 22	
			1995 9 27	200,000	35	강영경	200,000	1995 3 22	
33	정미영	100,000	1995 3 22		35	권정임	200,000	1995 3 22	
33	정길순	100,000	1995 3 22		35	권혜정	200,000	1995 3 22	
33	정성희	100,000	1995 3 22		35	김미나	200,000	1995 3 22	
33	정수행	100,000	1995 3 22		35	김선하	200,000	1995 3 22	
33	조현란	100,000	1995 3 22		35	김영아	200,000	1995 3 22	
33	주인자	100,000	1995 3 22		35	김윤경	200,000	1995 3 22	
33	최봉남	100,000	1995 3 22		35	김지애	200,000	1995 3 22	
33	최은경	100,000	1995 3 22		35	김현숙	200,000	1995 3 22	
33	홍영란	100,000	1995 3 22		35	김혜경	200,000	1995 3 22	
33	황정혜	100,000	1995 3 22		35	김혜선	200,000	1995 3 22	
34	고영미	100,000	1995 3 22		35	김혜정	200,000	1995 3 22	
34	곽영숙	200,000	1995 3 22		35	나미순	200,000	1995 3 22	
34	곽계숙	200,000	1995 3 22		35	박경은	200,000	1995 3 22	
34	곽순복	200,000	1995 3 22		35	박규현	200,000	1995 3 22	
34	권경수	200,000	1995 3 22		35	박옥자	200,000	1995 3 22	
34	권혜경	200,000	1995 3 22		35	박은주	200,000	1995 3 22	
34	김강림	200,000	1995 3 22		35	서미자	200,000	1995 3 22	
34	김미경	200,000	1995 3 22		35	양경자	200,000	1995 3 22	

회기	성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비고	회기	성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비고
35	유미영	200,000	1995 3 22		37	오현숙	240,000	1992 12 1	
35	윤경원	200,000	1995 3 22		37	유명숙	240,000	1992 12 1	
35	이명진	200,000	1995 3 22		37	유연순	240,000	1992 12 1	
35	이명화	200,000	1995 3 22		37	유현주	100,000	1995 3 22	
35	이희숙	200,000	1995 3 22		37	이강인	240,000	1992 12 1	
35	장말례	200,000	1995 3 22		37	이난영	240,000	1992 12 1	
35	정소영	200,000	1995 3 22		37	조정옥	240,000	1992 12 1	
35	진명숙	200,000	1995 3 22		37	최우인	240,000	1992 12 1	
35	최부금	200,000	1995 3 22		37	하성숙	240,000	1992 12 1	
35	최효경	200,000	1995 3 22		37	황희선	240,000	1992 12 1	
35	탁남덕	200,000	1995 3 22		38	박은아	500,000	1991 7 11	
35	한현순	200,000	1995 3 22		38	이주영	300,000	1991 9 5	
35	황선미	200,000	1995 3 22		39	강영숙	200,000	1995 3 22	
36	강종례	240,000	1995 3 22		39	고효숙	200,000	1995 3 22	
36	김경희	100,000	1995 3 22		39	김경옥	200,000	1995 3 22	
36	김미자	240,000	1995 3 22		39	김소영	200,000	1995 3 22	
36	김순자	240,000	1995 3 22		39	김해숙	200,000	1995 3 22	
36	김원진	240,000	1995 3 22		39	김현주	200,000	1995 3 22	
36	문미애	240,000	1995 3 22		39	변선희	200,000	1995 3 22	
36	배미영	240,000	1995 3 22		39	신옥화	200,000	1995 3 22	
36	백영숙	240,000	1995 3 22		39	신윙희	200,000	1995 3 22	
36	백우주	240,000	1995 3 22		39	안윤정	200,000	1995 3 22	
36	신광애	240,000	1995 3 22		39	안홍옥	200,000	1995 3 22	
36	신은주	240,000	1995 3 22		39	양미라	200,000	1995 3 22	
36	오현숙	240,000	1995 3 22		39	유선미	200,000	1995 3 22	
36	윤성숙	240,000	1995 3 22		39	은 경	200,000	1995 3 22	
36	이강신	240,000	1995 3 22		39	이금순	200,000	1995 3 22	
36	이명자	50,000	1995 3 22		39	이미경	200,000	1995 3 22	
36	이은숙A	240,000	1995 3 22		39	이미옥	200,000	1995 3 22	
36	이은숙B	240,000	1995 3 22		39	이수정	200,000	1995 3 22	
36	이태옥	240,000	1995 3 22		39	임애리	200,000	1995 3 22	
36	장한숙	240,000	1995 3 22		39	진경아	200,000	1995 3 22	
36	정경숙	240,000	1995 3 22		39	한순희	200,000	1995 3 22	
36	정영실	240,000	1995 3 22		39	한지현	150,000	1995 3 22	
36	정점순	240,000	1995 3 22		39	현문옥	200,000	1995 3 22	
36	최은심	240,000	1995 3 22		39	황금옥	200,000	1995 3 22	
36	홍매화	240,000	1995 3 22		LA	동문회 참석 공순구 동문 부부 외 동 문부부 10인	756,196	1995 5 24	\$1,000
37	강현미	240,000	1992 12 1		동문회(이자 수입포함)	25,933,200	1997 7 1	5,865,000	예배당성물
37	김선숙	240,000	1992 12 1				1997 7 1	20,068,200	
37	김선영	240,000	1992 12 1		동문회(마가렛모임)	400,000	1990 3 17	100,000	
37	김선자	240,000	1992 12 1				1992 12 9	300,000	
37	김성미	240,000	1992 12 1		예수병원 간호사 일동(선우회)	3,200,000	1992 12 1		
37	김연화	240,000	1992 12 1						
37	남궁봉주	240,000	1992 12 1						
37	박선자	240,000	1992 12 1						
37	빈정선	240,000	1992 12 1						
37	소 저	240,000	1992 12 1						
총계 ₩ 161,422,793									

미주 동문회

문옥자 동문(10회)



19 50년대 부터 이민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살고 있던 동문들은 1971년 Philadelphia에 거주하던 정태신(7회)동문(제1대 미주 동문회장)의 열성에 힘입어 동문회를 발족하면서 동부 New York, New Jersey, Pennsylvania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때 동문회 회의록을 보면 초대 변마지 교장님을 모시고 친목활동과 모교장학금 모금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또한 미국 State 마다 지부를 두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파악된 동문들의 주소록(63명)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해마다 초청하는 동문 가정이나 공원에서 동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시작된 동문회는 New York지부, Philadelphia지부(현회장 6회 이영자), Chicago지부(현회장 18회 정옥자), L.A.지부(현회장 21회 홍의숙), Atlanta지부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1980년 변교장님의 80회 생신때 강정자(7회) 동문집에서 100여명이 넘는 동문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드렸던 것과 1988년 88세로 변교장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실때까지 물심양면으로 극진히 간호하였던 이원자(7회) 동문 부부와 미주 동문들을 잊을 수 없다.

우리학교 동문회는 어느 학교보다 아름다운 모임이어서 다른 학교 동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남편들도 하나가 되어 뜨거운 정을 나누고 있다.

근래 동문들의 소식을 잠깐 살펴보면, 엄재정(6회)동문이 시카고에서 한인돕기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고(또한 97. 6월 일리노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수현(16회) 동문이 박사학위 취득 후 오클라호마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L.A.에 거주하던 진청자(10회) 동문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로 선교활동을 떠났고 또한, 윤애자(12회)동문이 신학공부를 마치고 네팔 신학교 교수로 봉사하기 위해 떠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김영실(1회)동문의 자녀가 SAT에 1600점 만점 획득의 영광을 안았던 것, 임정자(8회)동문의 남편 윤지원박사의 Virus논문이 과학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 등 훌륭한 동문과 또 동문 가족들의 자랑스러운 얘기가 너무 많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다.

1995년 모교 설립 45주년을 기념하여 총 동문회를 L.A.에서 개최하였을 때 그 기쁨의 함성으로 L.A.공항이 공중으로 뜰변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흐뭇하다.

흩어져 있는 각 지부들이 거리 관계상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안에서 한 자매된 우리는 이 미국 전역을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감사드린다.

모·교·소·식

1. 1996년부터 입학정원이 200명으로 증원되었다. 또한 입학정원의 10%(20명)가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3%(6명)가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1998학년도부터는 총 학생수가 678명이 된다.
2. 1996년 10월 동문들의 정성으로 시작하여 예배당(Seel Chapel)과 연구동(Pritchard Hall)이 새로이 준공되었다. 연구동은 교수연구실과 계단식 종합 강의실 2개, 소강의실 4개가 최첨단의 교육공학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지난 5월 26일 Seel Chapel에서 대학설립 47주년기념예배가 있었다. 설대위 명예이사장, 동문과 내외귀빈 교직원과 학생이 참석하였고 특별히 19회 동문들이 졸업 25주년을 맞이하여 모교에서 재상봉의 반가운 시간을 가졌으며 모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출연하였다.
4.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지난 5월중 실시한 전국 148개 전문대학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교육시설 영역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5. 1997년 1학기에 김근곤 교수(교육학), 2학기에 황성자 교수(간호학)가 신규 임용되어 현재 간호학교수 11명, 교육학 및 교양과목교수 2명등 총 13명의 교수가 모교에서 수고하고 있다.
6. 1997년 8월 25일에 우리대학에 간호학 연구소가 개설되었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김강미자 교수가 임명되었으며 개소기념학술세미나가 <건강증진과 운동>이라는 주제로 11월 12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회·소·식

동문회는 국내지회와 해외지회로 나누어져 있다.

국내지회로는 서울·경기지회, 대전·충청지회, 광주·전남지회, 전주·전북지회, 강원지회, 대구·부산·경상지회로 구분되어 있다.

국내 각 지회의 회장은 다음과 같다.

- 서울·경기지회장 — 고유근(6회)
- 대전·충청지회장 — 이덕례(2회)
- 광주·전남지회장 — 김연자(6회)
- 전 북 지 회 장 — 박순옥(6회)
- 강 원 지 회 장 — 오은자(11회)
- 대구·부산·경상지회장 — 최학례(15회)

해외지회의 각국 지회장은 정보를 입수하는대로 다음에 게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각 지회별로 동문회에 정보를 제공하면 연간 1회 발행하는 동문회보에 게재하여 각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소식을 전 동문들이 접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호에는 각 지회에서 보내준 소식중에서 가장 멀리서 자세하게 성의껏 제공한 해외지회중 미주동문의 소식을 게재하게 되었다.

다음 동문회보에 게재할 보다 알찬 지회소식들을 많이 보내주기를 바란다.

동문들께 알립니다

예수간호동문회보는 모교및 동문회, 동문 회원들의 활동소식을 모든 회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창간되었습니다.

동문회보가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그리고 2,103명 동문간의 우의와 친교를 나누는 소중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들의 주소, 연락처, 소식을 보내주시시오.

직장 또는 지역단위의 동문주소록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지회소식을 전해줄 통신원이 필요합니다.

각 지회에서 통신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Tel : (0652) 230-7751, 230-7760 / Fax : (0652) 230-7790

예수간호전문대학발전기금출연안내

1. 대학발전기금의 용도

- 4년제 승격준비
- 도서관 발전
- 면학환경조성
- 학술연구기금

2. 대학발전기금 출연범위

- 동문
- 교직원
- 동문회 이사
- 25주년 재상봉기념 방문기금
- 학생 및 학부모
- 뜻있는 단체 및 개인
- 기독교 재단

3. 기부형태

- 현금 · 적금(부금) · 교육용 비품 · 기타자산

4. 납부방법

조흥은행 702-01-135580

예수간호전문대학

조흥은행 702-01-112407

공순구

연락처 : 예수간호전문대학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68-1(562-250)

☎ TEL (0652) 230 - 7701

230 - 7730

230 - 8007

☎ FAX (0652) 230 - 7790

5. 기부한 분은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편집후기

무슨 일이든 의미있는 새로운 시작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회보의 발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어질 아름다우면서도 강한 동문들의 유대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호 부터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제 부족하지만 가슴벅찬 첫 발을 내딛습니다.

편집위원

김강미자

김 봉 선

윤 진

양 복 순